

No. 59

2006 JUNE

(재) 국제노동재단

〒101-0051 東京都千代田區神田神保町3 - 23 - 2 錦明빌딩5F TEL.03 - 3288 - 4188

FAX.03 - 3288 - 4155

URL:<http://www.jilaf.or.jp> E-mail:info@jilaf.or.jp

초빙사업 폴로 업 세미나 개최

1989년 JILAF설립 당초부터 시작한 초빙사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및 구미 각국으로부터, 많은 젊은층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일본에 초빙했다. 2005년도 말의 초빙 실적은, 112개국, 3개 지역, 6개 국제조직에서 온 1,886명에 이른다. 이러한 실적을 감안하여 이번에, 과거의 초빙사업 참가자들의 현재까지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중국과 방글라데시 2개국에서, 2006년 2월에 과거의 초빙자를 대상으로 한 폴로 업(follow-up)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으로부터는 21명, 방글라데시로부터는, 19명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에서는, 최신의 일본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법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본 노동자들의 노동·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일본 노동운동의 역할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세미나 참가자들은 귀국 후의 활동과 일본에 대한 관심 사항등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 중, “초빙사업 참가 후, 귀국한 후 업무 속에 그 경험을 살려 일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문화, 노사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등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일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 대사관 및 현지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지에서의 정보수집도 했다.

이번에, 중국·방글라데시의 각 내셔널센터의 협력으로 실시된 이 폴로 업 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내셔널센터와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점과, 참가자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던 점 등이 성과였다.

앞으로는, 참가자가 귀국후 일본에서 배운 경험을 자신의 일에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 앞으로의 초빙사업에 참가자들의 니즈등을 받아들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갈 필요성을 느꼈다.

2006년도부터 초빙사업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현지에서의 폴로 업 세미나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초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JILAF의 책무이며, 보다 더 현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와, 현지의 각 내셔널센터와 더 많은 협력을 도모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방글라데시의 세미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중국 폴로 업 세미나의 모습

동티모르에서 워크숍을 개최

JILAF로서는 동티모르에서 처음 실시하는 현지 지원사업인 “노조 기초 워크숍”을, 3월 7일~10일까지 4일간 TLTUC/ICFTU-APRO와 협력하에 개최했다.

워크숍은 ICFTU-APRO의 하리다산(Haridasan)국장, TLTUC(동티모르노동조합연합)의 Jose C. da Costa회장, Rigoberto Monteiro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미 조직화한 교원, 항만·운수, 건설 노조 및, 현재 조직화중인 상업·호텔 농업노조로부터 25명이 참가했다. 정전및 LCD프로젝터의 고장,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매일 운영이 개선되어, 참가자의 수준(이해도와 참가 자세등)도 월등히 향상되는 등, 성공리에 끝났다.

동티모르TLTUC는 결성 5년의 상당히 젊은 조합으로, 아직 성숙하지는 않지만 조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ICFTU-APRO의 하리다산국장이, APRO가 작성한 메뉴얼을 토대로 노조 기초전반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룰 플레이등을 삽입한 실천적인 내용이었다. 동티모르에서는, 이러한 기초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워크숍이었다고 생각한다.

JILAF로부터는 현지지원사업부의 스즈키부장이 출석하여, “JILAF소개”를 비롯하여, 조합기구, 재정, 노사관계, 단체교섭과 노동협약의 4개의 세션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조의 중요한 포인트를 강의했다.

▲워크숍 종료후, 전원이 기념촬영

중국에서 “POSITIVE”모니터링

중국에서의 JILAF 노동안전위생 프로그램 “POSITIVE”(注)는, 중화전국총공회(ACFTU)와 2003년부터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쓰촨성(四川省)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저장성, 장쑤성에서는, 3년간의 업무 위탁사업인 JICA의 “풀 뿌리 기술협력 사업”으로서 전개하고 있다.

중국측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세미나를 통해 160명의 트레이너를 육성하였고, 각 성(省) 레벨의 세미나를 178회 개최하여 5,220명이 참가, 각 기업 레벨의 세미나 참가자는 38,854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풀뿌리적인 전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 성(省)에서의 기업 레벨의 전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기업을 대상

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공장 레벨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자측과 하나가 되어 노동 안전위생을 추진, POSITIVE가 착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JICA중국사무소로부터 세미나에 스태프를 파견하는등, JICA로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POSITIVE를 이용한 노동안전위생활동을 현지에서 전개해 나가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중화전국총공회로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인가 이며, JILAF도 중화전국총공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고자 한다.

注)Participation-Oriented Safety Improvements by Trade Union Initiative.

▲ “POSITIVE”모니터링 모습/2006년 3월 19일~25일

회랑

야마다 요이치(山田陽一)

PROFILE

(재) 일중기능자교류센터(JCSEC) 상무이사

1935년 출생 /동경대학 법학부졸업

1982~89년 총평(日本労働組合総評議會)국제국장

1990~95년 연합(日本労働組合総聯合會) 국제정책국장

1995~03년 JILAF전무이사

2003년부터 현직

(재) 일중기능자교류센터의 HP

<http://www.jcsec.or.jp/>

“파이팅 JILAF!”

지난 3월, JILAF이사회에서 상담역을 사임하고, 비상근 이사로 선출되었다. 나는 JILAF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연합에 재직 당시 평의원으로 시작하여, 전무이사, 상담역, 또 현재의 비상근이사 등, 역할은 바뀌었지만 임기를 합하면 십수년에 이른다. 상담역을 떠나면서 JILAF활동에 대한 감상을 말해달라는 편집부의 요구에 응하여 2, 3가지 언급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JILAF 활동은 2개국간 활동이 기본이지만, ICFTU(신조직)를 비롯하여, ILO, 혹은 최근 DAC와의 관계를 깊이 하고 있는 TUAC등, 다국간 활동과 관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국제적인 노동분야의 개발협력조직의 활동 실태를 알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또, 그를 위해서는, 다국간 활동에 주력하는 연합의 국제 활동과 한층 더 협력을 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개발협력활동의 국제적인 모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정보화사회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노동사정및, 선진국노조, 또한 앞서 언급한 국제노동 관계 조직의 개발 협력 활동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직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가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활동이, JILAF의 새로운 활동 전개로 연결되어 갈 것이다.

끝으로, 일본에 초빙된 도상국노조지도자들이, 일본 체재의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격해 하며, 친일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물 초빙사업의 깊은 의의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JILAF를 떠나 있으면서, JILAF활동의 중요성을 점점 통감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No. 11

“타이라오스의 이동 도서관”

일본 기간산업노동조합연합회(기간노련)
사무국차장 후나키 코지(船木孝治)씨

타이, 라오스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 사정 및, 교육환경 부족 등으로 인해 학습할 기회를 잃고 있다.

기간노련(日本基幹産業労働組合連合會)은, 조직 이념의 하나인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샹티국제자원봉사회(Shanti Volunteer Association)를 통해, 이동도서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1월에 타이에, 같은 해 6월에는 라오스에 이동도서관 자동차 “기간노련호(基幹勞連號)”를 증정했다. 현재, 산악지대 등의 가혹한 상황에서도 이동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앞으로는, 도서 리뉴얼 및 이들 자동차의 유지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이동도서관 자동차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 정신은, 착실히 활동을 계속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후나키씨는, “기간노련호”의 책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많은 꿈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이, “기간노련호”를 통해 많은 책을 만나, 앞으로 살아갈 힘을 기르고, 미래를 전개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조사홍보부 가토(加藤))

▲준비를 시작하면, 곧 바로 아이들이 달려온다. 혼잡한 광장 속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

기간노련의 HP:<http://www.kikan-roren.or.jp>

2006년도 사업계획!

3월 3일에 개최된 제47회 이사회·평의원회에서, 200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초빙사업은, 합계 13개팀, 젊은층 노조리더 초빙 인원수 127명을 초빙할 예정이다. “테마별 초빙”으로서,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와 “젊은이들의 고용과 노동조합의 역할”의 2개의 테마를 설정했다. 또, ICFTU세계대회에서 결정된 국제노동조합조직의 해산 및 신조직 결성을 위한 방침을 고려하여, 아직 초빙하지 않은, ICFTU에 가맹한 아

프리카와 유럽 각국을 주된 신규초빙 대상국·조직으로 했다.

한편, 현지 지원사업으로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운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 촉진을 목표로, 금년도에도 아시아의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안전위생활동 “POSITIVE”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교육활동”, 아동노동대책으로서의 비정규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 활동”을 현지의 내셔널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해 나간다.

수입면에서 어려운 환경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사업진행 방법을 한층 더 “양에서 질”로 전개해 나간다. 또, 사업평가체제를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사업운영을 도모하면서, 홈페이지 내용에 충실을 기하는 등, 국내의 노동조합원과 국민들의 더 많은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한다.

JILAF 달력

■활동 보고 (2006년 3월~5월)

●초빙

- 동아시아팀 (5월 11일~24일)
-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팀 (5월 25일~6월 7일)

●현지지원

- 동티모르TLUC/ICFTU-APRO/JILAF노조 기초세미나
(3월 7일~10일) 딜리(Dili)
- 중국ACFTU POSITIVE 모니터링
(3월 19일~25일) 베이징(北京),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기타

- 제47회 총무위원회
(5월 16일) 총평회관
- 제48회 이사회·평의원회
(5월 26일) 호텔Lungwood

■활동 예정(2006년 6월~)

●초빙

- 남아시아팀 (6월 8일~21일)
- 아프리카 영어권팀 (6월 29일~7월 12일)

- 아시아 노조연수팀 (7월 23일~29일)
- 중동·아프리카 북부팀 (8월 31일~9월 13일)
- 현지지원
- 방글라데시ICFTU-BC 조직화·POSITIVE세미나
(5월 28일~6월 11일) 다카(Dacca), 치타공(Chittagong), 콜나(Khulna)

INSIDE OUT

인 사이드아웃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서 온 하기노(萩野)입니다. 개발도상국과 교류·협력 활동을 하는 JILAF에서 일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긴장감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하기노 아야노부(萩野文信)

/JILAF스텝